

『삼국유사』 〈보양이목〉조 용궁삽화와 용자파견(龍子派遣)화소의 서사적 실현과정 연구

: 서사전통의 계승과 변용을 중심으로

강진옥*

<차 례>

1. 머리말
2. <보양이목>의 서술구조와 용궁삽화 위상
3. 용궁삽화와 불교서사전통의 수용 및 변용
4. 용자파견 화소의 계승과 변이
5. 마무리

〈국문초록〉

『삼국유사』 〈보양이목〉은 고승 보양(寶壤)의 행적을 4개의 삽화를 통해 보여 준다. 이들은 다양한 서사전통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용궁삽화의 경우 불교서사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용자 이목(璃目)을 보내 고승을 시봉하게 하는 ‘용자파견’ 화소를 제시하고 용왕의 입을 빌어 서사내용 전반을 예시함으로써 전대 서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변이양상을 보여 준다. 용자파견 화소의 본격적 서사화는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에서 처음 확인된다. 동해용자 처용은 서해용자 이목과 그 서사적 층위에서 뿐만 아니라 인물 의 행적에서도 민속신앙적 면모가 부각된다는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어, 양자의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용자파견 화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삼국유사』 〈보양이목〉과 구전설화의 관계 규명에도 일정한 참조가 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설화가 이목과 이목(梨木, 배나무)를 동일시한 후 배나무의 행방을 문제 삼는데 비해, 구전설화는 보양을 떠나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주하는 이목의 행방을 추적한다. 이목은 구전설화에서 기우제의 대상으로 자리하면서 민속신앙의 영역으로 귀환하는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배나무와 동일시되고 다시 법당의 빗장못치로 전환하면서 불교적 세계관 속에 완전히 편입하게 된다. 구전설화와 『삼국유사』 설화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세계관적 지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고승의 서해용궁 방문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동진(東進)하는 불교의 세계종교화 과정을 보여준다. <보양이목>의 용궁삼화는 불교적 서사전통을 계승하면서 용자파견 화소를 통해 운문사 주변지역의 문화문맥(文化文脈)을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전설화가 이목의 이주라는 사건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면, 삼국유사는 이목과 배나무를 동일시하고, 다시 배나무를 불교적 세계관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재래신앙과 불교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시도하고 있다. 일연은 이러한 세계관적 지향을 서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관습화된 불교적 서사전통 뿐만 아니라 민속적 서사전통을 다각적으로 계승하면서 전승현장의 문화문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변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 삼국유사, 보양이목, 용궁삼화, 용자파견, 불교설화, 서사적 실현과정, 서사전통, 계승과 변용

1. 머리말

<보양이목>은 『삼국유사』 의해편에 수록되어 있는 고승 보양의 승전으로 알려져 있다. <보양이목>의 서술방식에서 특기할 부분은, 고승의 행적을 몇 개의 삼화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서두의 용궁삼화에 등장하는 화소들이 이후에 전개되는 서사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독자적인 삼화형식으로 서술된다는 점이다. 용궁삼화는 불교계 서사에 나타나는 서사 유형의 하나이지만, <보양이목>의 용궁삼화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용자 이목(璃目)을 주어 고승을 시봉하게 하는 ‘용자파견(龍子派遣)’ 화소 때문이다. 파견된 이목은 이후 운문사 경내를 배경으로 하

는 ‘행우(行雨)’ 삽화의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행우’를 중심으로 보양과 이목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 서사는 운문사 주변 지역에서 지명유래적 성격을 갖는 구전설화 형태로도 전승되고 있다. 구전설화와 문헌설화의 내용은 천제의 징벌 이후 대목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헌설화가 이목(璿目)과 이목(梨木)을 동일시하고 이목(梨木)의 행방만 추적하는데 비해, 구전설화에서는 보양을 떠나 이주하는 이목(璿目)의 행방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양이목>에 대한 연구는 조동일이 『삼국유사』와 구전설화의 관련양상을 검토하면서 이 설화유형의 가치와 의의를 주목한 이래¹⁾, 구전설화와의 관련양상을 검토하여 의미의 층위 해석과 원형 탐구 시도²⁾, 전승자료를 승전(僧傳)과 향전(鄉傳)으로 파악하고 민속신앙과 불교의 관계양상 규명³⁾, 이목의 강우 사건을 기우(祈雨) 풍속과 연관시킨 민속학적 접근⁴⁾, 불교신앙 중심의 다양한 계층 연대 파악⁵⁾, 서사층위에 따른 인물 위상과 그 의미 해석⁶⁾, 구조분석방법으로 인물 관계 규명⁷⁾ 등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본

-
- 1)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79.;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집문당, 1985.
 - 2) 강정식, 『<보양이목> 설화 연구』, 『백록어문』 6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9.
 - 3) 천혜숙, 『『삼국유사』 <보양이목>의 전승론적 검토』,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형설출판사, 1996.
 - 4) 황경숙, 『이무기설화와 기우제』, 『한국의 역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2000.
 - 5) 박다원, 『『삼국유사』 <보양이목> 설화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 16집, 태민국학연구원, 2015.
 - 6) 신태수, 『『삼국유사』 <보양이목>설화의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한민족어문학』 66집, 2014.
 - 7) 김문태, 『한국설화의 구조분석 시고: 『삼국유사』 소재 <보양이목>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Vol.18 No.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0.

적으로 논의의 방향을 구전설화와의 비교라는 관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대부분이 구전설화에 나타나는 변이양상을 주목하고, 구전설화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전설화를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삼국유사』 <보양이목>이 구전설화를 불교적 관점에서 변개시킨 것으로 간주한다.⁸⁾ 당연히 구전설화와는 그 의미지향을 달리하는 『삼국유사』의 <보양이목>은 구전설화 전승집단과는 다른 세계관적 기반을 가진 전승집단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변개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 변개와 관련한 전승적 맥락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⁹⁾ 『삼국유사』 곳곳에서 확인되는 일연의 실증적인 기술태도로 볼 때, 변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편찬자의 일방적인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문제는 <보양이목>에 나타나는 변이가 어떠한 서사전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된다.

선행연구자들은 대체로 구전설화에서 문제삼는 이목의 행위와 천제의 징벌이라는 삽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국유사』 소재 <보양이목>은 다양한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삽화들의 연쇄를 통해 불교설화로서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 <보양이목> 연구는, 구전설화와의 비교연구는 물론 그 서사세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논의가 두루 이루어졌을 때 그 객관적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보양이목> 연구에서 쟁점을 이루고 있

8) 조동일(1979), 강정식(1989), 천혜숙(1996) 등이 해당된다.

9) 강정식(1989)과 천혜숙(1996)은 그 전승적 맥락을 구비설화의 전통 안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보양이목>의 형성과 변이 문제는 구비전승의 문맥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을 가지고 있다.

는 이목의 정체에 접근하기 위하여 구전설화와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부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삽화들을 논의대상으로 삼아, 선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사전통과의 연관아래 해당서사의 형성과 변이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구전되는 설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은 서두에 자리한 용궁삽화와 이목행우삽화일 것인데, 이 두 삽화는 용자파견 화소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용자파견은 서해용왕이 아들 이목을 고승에게 주어 시봉으로 삼게 했고(용궁삽화), 이목이 고승의 뜻을 받들어 비를 내린 결과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이목행우 삽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따라서 용자파견을 문제삼는 것은 이목의 정체성 문제를 서사전통의 문맥 속에서 규명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본고는 용궁삽화와 용자파견 화소를 중심과제로 삼아 『삼국유사』 <보양이목>의 삽화들이 어떠한 서사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변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삼국유사』 설화가 구전설화와는 상이한 의미지향을 갖게 된 서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 화소의 서사적 실현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될 것이다.

2.<보양이목>의 서술구조와 용궁삽화의 위상

<보양이목>에서 특기할 부분의 하나는 서술의 방식이다. 고승의 행적을 보여주는 몇 개의 삽화를 중심에 놓고, 그 전후에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서술내용을 삽입하여, 삽화와 삽화가 연결되는 서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 서두에 운문사 관련 사적들을 제시한 이후, 고승의 용궁행 및 용왕과의 만남을 보여주는 서사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서사의 시작을 알려준다. <보양이목>의 서사

내용을 담아내는 삽화들을 차례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1. 조사 지식이 중국에서 법을 전해 받고 돌아올 때, 서해용왕이 용궁으로 맞아들여 불경을 염송하게 하고 금라가사(金羅袈裟) 한 벌과 아들 이목(璃目)을 주어 시봉하게 했다. 또한 삼국의 정세가 혼란스러우나 작갑으로 가서 절을 짓고 지내면 머지않아 호법군주가 나타나 삼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했다.

2. 보양이 이 동리에 이르니 원광법사가 인케(印櫃)를 전해주고 사라졌다. 무너진 절을 일으켜 세우려고 북령에 올라가니 5층 황탑(黃塔)이 서 있는 것이 보였으나 내려와 보니 아무런 자취가 없었다. 다시 올라가 보니 까치떼가 땅을 쪼고 있었다. 그곳을 파보니 해묵은 벽돌이 무수히 있었으므로 쌓아올려 탑을 이룩했다. 절 세우기를 마치자 그곳에 머무르고 작갑사라고 이름 했다.

3. 이목은 절 곁의 조그만 못에 있으면서 정법의 교화를 도왔다. 어느 해 날이 몹시 가물었으므로 이목에게 비를 내리게 했다. 천제가 사자를 보내 이목을 죽이려 하므로 보양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목을 상 밑에 숨기고, 뜰 앞의 배나무를 가리키니 사자가 벼락을 치고 올라갔다. 시들고 꺾여진 배나무는 용이 한번 어루만져주자 곧 소생했다.

4. 보양은 중국을 다녀와 먼저 추화의 봉성사에 머물고 있었다. 태조가 동쪽을 정벌하여 청도(淸道) 부근에 이르렀는데 산적이 견성(犬城)에 집결하여 대적해 오지 않자 보양에게 제어할 방도를 물었다. 낮 시간을 타고 견성의 북쪽으로 쳐들어가라는 보양의 말대로 실행한 결과 산적은 패배하고 항복했다. 태조는 해마다 조세 50석씩을 주어 향화를 받들게 했다.

위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궁삼화 : 고승과 용왕의 만남이 용궁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용궁삼화라 이름할 수 있다. 이 삼화는 서술자의 시점(視點)이 용왕에 두어져 있고 서술된 내용은 대부분 용왕의 목소리로 발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들은 이후 전개되는 <보양이목> 서사전반과 연관되는 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용왕이 아들 이목을 주어 시봉하게 한 부분, 작갑으로 가서 절을 짓고 지내라는 당부, 호법하는 왕의 출현에 대한 예견 등이다.

2. 작갑사창사 연기(緣起)삼화 : 작갑사가 지어진 내력을 설명하는 연기담이다. 보양이 이곳에 이르자 원광법사가 나타나 인케를 전달한다. 고승은 인케를 통해 원광법사가 세웠던 작갑사 중창에 대한 소명을 자각하고, 북령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본다. 황탑의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은 다시 까치떼의 쪼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초시간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비로소 ‘용왕이 했던 작갑(鵲岬)이란 말을 상기하고’ 그 곳을 파니 해묵은 벽돌들이 나와 사찰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는 고승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용궁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목의 행우(行雨) 삼화 : 운문사 경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파견된 용자 이목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목은 고승의 곁에서 은근하게 덕화를 도왔다고 하는데, 이 삼화에서는 비를 내리는 용신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한다. 가뭄이 계속되자 고승의 명령을 받아 비를 내림으로써 경내는 흡족하게 되었지만 천제의 징벌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목은 고승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고승은 그를 숨긴 후 이목을 내어놓으라는 사자에게 배나무를 가리킨다. 사자가 배나무에 벼락을 때리고 올라가자 시든 배나무는 이목이 어루만져 소생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이 대목 이후 이목과 배나무가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이

목의 행방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대신 배나무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후일담을 부각한다. “근년에 그 나무가 쓰러지자 어떤 사람이 빗장 못치를 만들어 선법당(善法堂)과 식당에 안치했다. 그 못치 자루에는 명(銘)이 있다.” 이목 때문에 시들었던 배나무는 이목에 의해 되살아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빗장못치로 전환되어 선법당과 식당에 안치된다. 선법당은 수미산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이 천인들을 모아서 인간과 천상의 일을 논의한다고 하는 강당이라고 한다.¹⁰⁾ 선법당의 빗장못치는 선법당을 지키는 문지기인 썸이니 이는 용 이목을 제석천의 수호신으로 삼았음을 의미하며 용과 제석천을 화해시켜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킨 것¹¹⁾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목과 배나무를 동일시하고 배나무의 행방을 부각하는 삼국유사의 내용은 보양을 떠나 이주하는 이목의 행방을 추적하고 부각하려는 구전설화의 방향과는 대조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4. 봉성사 유래담 : 이 삽화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나, 가장 나중에 기록되고 있다. 고승이 귀국 직후에 머물고 있던 절에서 시작된 고려 태조와의 인연은 용왕의 당부 내용과 부합된다. 견성 전투에서 비롯된 그 인연은 태조의 군사작전에 대한 고승의 자문으로 구체화되고 그것은 전략적으로 유효해서 봉성사 유래로 연결되고 있다. 고승의 신이힘에 탄복한 태조가 제공한 조세 50석은 사찰의 번성과 교세확장에 기여했을 것이고, 태조와 보양이 각기 성인으로서 그 진용이 나란히 봉안되면서 봉성사라는 사명이 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그 인연은 이후 운문사 사찰 명칭의 유래담으로 확장된다. “그 뒤 보양사는 작갑으로 옮겨가 크게 절을 세우고, 거기서 종생했다.”는 대목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다음 인용문은 두 번째 삽화인 작갑사연기담의 후일담에 해당된다.

10) 정천구, 『삼국유사, 바다를 만나다』, 산지니, 2013, 246쪽.

11) 정천구(2013), 앞의 책, 246쪽.

“여기에 절을 세우고 살면서 절 이름을 작갑사라고 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법사가 이곳에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다섯 갑의 밭 500결을 합해서 이 절에 바쳤다. 그리고 창태 4년 정유에는 절 이름을 절 이름을 내리어 운문선사라 하고, 가사의 신령스러운 음덕을 받들게 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작갑사 창사 - 고려 태조의 삼국 통일 - (태조가) 다섯 갑의 밭 500결 바침 - (태조가) 운문선사라는 절 이름 내려줌’에 이르는 과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금라가사의 신령스러운 음덕을 받들게 했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이는 창사부터 운문선사 사액까지의 과정들이 모두 서해용궁에서 발화된 용왕의 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갑에 절을 짓고 지낸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 - 고려태조의 삼국 통일, 사찰 운영할 재원 지원, 그리고 운문선사 사액에 이르는 일들은 용왕의 당부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다. 그것은 ‘가사의 신령스러운 음덕을 받들게’ 돕는 일이다. 이처럼 금라가사와 용자 파견은 이후 서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용궁삼화는 서사전반의 예고편으로서, 용왕의 말을 통해 고승의 미래가 예시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보양이목>조는 고승의 행적을 몇 개의 삼화를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고승의 행적을 보여주는 각각의 삼화는 그 공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서사적 단서를 마련하는 주요 등장인물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자파견은 <보양이목>의 전승맥락에서 쟁점이 되어온 이목의 정체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보양이목>의 서술구조를 삼화구성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본고의 논의대상인 ‘용자파견’을 검토하는데 효

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용궁삽화의 불교서사전통 수용과 변용

3.1. 용궁삽화의 전례 마련: 불전(佛典)과 <용수보살전>

<보양이목>의 서두를 장식하는 용궁삽화는 불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전통을 지닌 서사유형이다. <불본행집경>을 비롯하여 여러 경전에 전해지는 해당 각편들은 부분적으로 변이를 보이지만 서사의 기본구조에서는 동일한 전개양상을 보여준다. <불본행집경>에 실려 있는 해당 삽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가 성불하자 가라용왕(迦羅龍王)이 찾아와 불족(佛足)에 정례(頂禮)하고 자신의 용궁을 보시하면서 용궁을 방문해주기를 간청한다. 이에 가라용왕의 용궁을 방문한 석존은 가부좌하여 7일 동안을 일어나지 않고 해탈락(解脫樂)을 받으시고 7일이 지난 뒤에 정념(正念) 정지(正知)의 삼매(三昧)로부터 일어나 용왕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 대안락을 얻도록 하라고 하니, 용왕이 3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았다. 세간 중에서 최초로 우바세의 이름을 얻었으며 축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삼귀의를 설해 받은 것이 가라용왕이다.¹²⁾ 이때 가라용왕을 이어 삼귀 오계를 받았다는 목진린타용왕의 사례도 부분적인 변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¹³⁾

이상의 내용을 단락화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2) <불본행집경> 권제 31 二商奉食品 제35. 김영태, 『『삼국유사』 소전 불교 용에 대하여』, 동북아세아연구회, 『삼국유사의 연구』, 중앙출판, 1982, 363쪽에서 발췌 인용.

13) 이밖에도 불타에 귀의한 용의 사례는 불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나고 있다.(앞의 글, 364~365쪽)

- ① 석존이 성불하다.[구법의 완성, 정각(正覺)]
- ② 용왕이 용궁방문을 간청하다.[용궁방문 요청]
- ③ 석존이 용궁에 들어가 7일 동안 해탈락을 누리다.[용궁행과 법열]
- ④ 석존이 용왕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주다.[법시(法施)]
- ⑤ 용왕이 삼보에 귀의하다 [귀의]

용궁삽화의 서사전통은 <용수보살전>에서도 확인된다. <용수보살전>은 그 분량이 상당한 서사이므로 용궁행과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보기로 한다.

용수는 불교에 귀의한 후 경전의 뜻은 이해했지만 꿰뚫지는 못했으므로 다른 경전을 찾았으나 염부제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대룡(大龍)보살이 그를 맞아 바다로 들어가 궁전에 있는 칠보장(七寶藏)을 열고 칠보 화함(華函)을 꺼내 모든 방등(方等)의 심오한 경전과 한량없는 묘한 법을 주었다. 용수가 이를 받아 읽고 마음속 깊이 보배로운 이익을 체득(體得)하여, 모든 경전의 여여한 모습[一相]을 증득하고 무생(無生)에 깊이 들어가 두 가지 인(忍)을 구족했다. 용이 다시 남천축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불법을 크게 흥포하고 외도를 꺾어 항복받았으며, 수많은 저술을 통해 대승불교의 기초를 확립했다.¹⁴⁾

14) 용수보살의 저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대승을 널리 밝히는 우파제사(優波提舍) 10만 계(偈)를 지었다. 또 『장엄불도론(莊嚴佛道論)』 5천 계와 『대자방편론(大慈方便論)』 5천 계, 『중론(中論)』 5백 계를 지어 대승의 가르침이 천축에 크게 행해지도록 했다. 또한 『무외론(無畏論)』 10만 계를 지었는데, 『중론』은 그 안에서 나온 것이다.” <용수보살전(龍樹菩薩傳)>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 박종린 번역, <http://blog.naver.com/byunsdd/60211915923>.

이상의 내용을 단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용수보살이 불법의 오의(奧義)를 꿰뚫고자 더 많은 대승경전을 간구하다.[구법]
- ② 대룡보살을 따라 바다 속 용궁으로 들어가다.[용궁행]
- ③ 용궁에서 대룡보살이 내어주는 대승경전 무량묘법을 받는다.[용왕의 법보시]
- ④ 용수가 마음속 깊이 보배로운 이익을 체득(體得)하고 깨달음을 이룬다.[깨달음]
- ⑤ 용수는 남천축으로 돌아가 불법을 흥포하고 대승불교의 초석을 세우다.[법시]

대룡보살은 용왕을 다른 방식으로 일컫는 이름이다. 용왕을 따라 용궁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석존의 사례에서 보인 용궁방문 요청에 비견된다. 용궁이 깊은 바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면, 용궁의 칠보장과 칠보화함은 겹겹이 싸여있는 해당 공간의 중핵(中核)이자 근원적인 무엇을 상징한다.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용궁 ⇒ 그 안에 자리하는 칠보장 ⇒ 그 안에 자리하는 칠보함 ⇒ 그 안에서 나온 대승의 심오한 경전과 무량묘법’의 관계는 점점 깊숙하고 내밀한 중심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석존이 용궁으로 들어가 가부좌하여 7일 동안을 일어나지 않고 해탈락을 받으며, 7일이 지난 뒤에 정념 정지의 삼매에서부터 일어났다’는 사례와도 일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용궁이 무의식의 심층에 자리하는 ‘근본자리’를 표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용궁의 ‘칠보장을 열고 칠보화함에서 무량묘법을 받는다’는 부분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승이 마음을 밝혀 마침내

근본자리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궁, 칠보장, 칠보함은 불법과 그 깨달음이 갖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탁월한 비유이자 상징이다.)

이상 석존과 용수보살의 사례에서 본 용궁삽화에서 용궁은 물리적 세계공간으로 관념되는 한편, 우리의 마음자리를 표상하는 은유이자 상징으로 자리한다. 여기서 불교적 서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교적 진리인식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유(喻)를 빈번히 활용한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이들 서사에서 언표되는 개념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용궁이 마음자리라면 용왕은 그 공간의 주인이다. 따라서 용왕의 안내를 받아 용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안의 깊숙이 자리하는 무의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용궁의 심처(深處)에서 용왕이 내어주는 제방등(대승) 심오경전 무량묘법을 받는다는 것은 마침내 고승이 지혜를 요달하고 근본당처에 주인공으로 우뚝 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각을 이룬 석존이 용궁에서 누렸던 7일간의 열반락은 용궁의 무량묘법을 받고 크나큰 깨달음을 이룬 용수보살의 마음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불이(不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 석존의 용궁행이 삼매와 열반락을 거쳐 법을 베풀으로써 용왕이 불법에 귀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비해 용수보살의 용궁행은 대승경전의 오의를 요달함으로써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여러 경전에서 약간의 변이와 함께 되풀이 나타나는 석존의 용궁행이 각기 다른 지역을 관장하는 다양한 용왕들과의 사례 반복을 통해 불교의 전파와 그 세계화 과정을 보여준다면, 용수보살의 용궁행은 대승경전의 요체를 내면화하는 깨달음의 실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용왕과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두 서사의 내용을 비교해본다면, 석존과 용수보살은 그 존재론적인 위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차이는 석존의 사례가 성불한 이후의 전법과 관련된 일화인데 비해 용수보살의 경우는 깨달음을 완성해가는 단계를 해당일화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의 차이는 석존의 용궁삼화가 불교의 서사 전통에서 깨달음의 실현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전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3.2. 『삼국유사』 소재 용궁삼화의 존재양상

그러면 깨달음과 전법이라는 주제를 함축하면서 불교서사의 전통으로 자리잡아간 용궁삼화가 삼국유사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고승과 용왕의 만남을 서사의 축으로 삼아 전개되는 이야기는 『삼국유사』 고승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고승담에는 그 만남의 과정에서 용궁행이 언표되는 경우[명랑¹⁵⁾, 보양¹⁶⁾, 원효¹⁷⁾]도 있지만, 용궁행이 배제된 용신과의 만남[자장¹⁸⁾, 진표¹⁹⁾, 보요²⁰⁾]을 다룬 사례들도 나타난다. 고승의 용궁방문은 용왕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용왕과 고승의 만남이다. 달리 말하면 용궁행은 ‘용왕의 고승 친견’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용궁삼화를 확대 적용하면 용왕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승과의 만남을 두루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관련 서사들은 사건의 전개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15) <명랑신인> 『삼국유사』 권 제5 신주 제6.

16) <보양이목>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17) <원효불기>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송고승전』.

18) <황룡사9층탑>, <대산오만진신> 『삼국유사』 권 제3 탑상 제4.

19) <관동풍악발연수석기> 『삼국유사』 제4권 의해 제5.

20) <전후소장사리>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전재[용궁행]에 해당되는 원효대사의 경우, 용궁을 방문하고 용왕을 만나는 인물은 신라왕비의 약을 구하러 떠난 사신일행이다. <원효불기>에는 간략하게 언급되었던 이 대목은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다.²¹⁾ 용왕은 병을 치료할 비책으로서 <금강삼매경>을 내어주며 원효대사가 그 소(疏)를 짓고 강설(講說)하면 병이 낫는다고 알려준다. (그 결과 경전이 찬술된다) 후자[비용궁행]에 해당되는 보요국사의 경우, 대장경 운송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격화된 용신이 아닌 바다 한가운데에서 맞이하는 거센 풍랑을 통해 용신과의 관계가 설정된다. 고승은 이를 대장경을 소장하고자 하는 신의(神意)의 표현으로

21) 이 대목은 『송고승전』에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왕의 부인이 몸쓸 중기로 매우 앓게 되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왕과 왕자와 신속(臣屬)들이 명산 대천과 영사(靈祠)를 찾아가서 기도까지 하였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 그때 어떤 무격이 말하기를, “사람을 타국으로 보내서 약을 구해와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은 사인(使人)을 당으로 보내어 의술(약)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왕명을 받은 사인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한 늙은이가 나타나 물결 속에서 배위로 뛰어올라와 사인을 데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바다 속에는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다. 이 궁전에는 검해(鈐海)라는 용왕이 있었는데 그 용왕은 사인을 보고, “그대 나라의 왕후는 청제(靑帝)의 세째 딸이다. 우리 궁중에는 금강삼매경이 있는데 이 경은 본각과 시각이 원통한 보살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왕후의 병은 훌륭한 불사인연을 짓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서 그대 나라에 유포시키도록 하라.” 하고는 정리되지 않은 산경(散經)을 사인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용왕은 ‘이 경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마사(魔事)에 걸릴지도 모르니 잘 간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칼로 사인의 장판지를 찢고는 그 속에 경을 넣어 봉하고 약을 바르니 장판지가 짝짝 같았다. 그리고는 또 “이 경은 대안성자(大安聖子)가 차례대로 정리하여 앞뒤가 맞는 경전으로 편차(編次)하게 하고, 다음에 원효법사에게 청하여 소를 지어서 강설하게 하면 왕후의 병환은 틀림없이 나을 것이다. 이 보다 더한 약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용왕이 해면(海面)까지 바래다 주어서 배를 타고 귀국하여, 왕으로 하여금 용왕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였다. 그래서 『금강삼매경』이 신라에 나타나게 되었고, 원효에 의하여 각승이라고도 불리우는 『금강삼매경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영태(1982), 앞의 논문, 352~353쪽에서 재인용)

이해하고 주력과 축원을 통해 신성과의 소통을 이름으로써 급기야 대장경과 함께 용신을 모시고 귀국하게 된다.

이러한 변이양상은 『삼국유사』 고승담이 용궁삼화의 서사전통을 수용하면서 고승의 행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어 갔던 정황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유사』의 용궁삼화가 불교서사의 전통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변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삼국유사』 고승담에 나타나는 용궁 또는 용신과의 만남을 다른 삼화들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 ① 용(왕)의 성격: 용(용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룡이며 고승의 조력자이다.
- ② 만남의 주체: 용(용왕)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방법은 용궁초청, 용의 현현 등이다.
- ③ 만남의 시점: 고승이 지향한 목표[신성친견, 전법, 학도(學道) 등]에 도달한 직후
- ④ 고승의 역할: 범시[비법 전수²²⁾, 경전 염송, 대장경 소지(所持)]
- ⑤ 용왕의 역할: 보시[가사, 황금, 아들]와 비책 제공 등 조력. 비책에는 사찰건립이 많고, 경전저술도 포함된다.
- ⑥ 결과: 고승의 사찰 건립

22) 명랑법사의 경우 “당나라에 들어가 도를 배우고 돌아오는데 바다용의 청을 받고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入唐學道 將還 因海龍之請 入龍宮傳秘法) 황금 천냥을 보시받아(施黃金千兩) 땅 밑을 잠행하여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나왔다.”에서, ‘傳秘法’ 대목의 해석은 ‘(고승이) 비법을 전해 받는다’ 경우와 ‘(고승이)비법을 전해주는’ 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승의 범보시와 용왕의 재보시가 그 원인과 결과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서 살펴본 불교 서사의 전통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양상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①과 ②는 모든 각편에서 공유되는 특징이며, 불전 및 <용수보살전>의 전례를 계승하고 있다. ③ 만남의 시점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삼국유사』 고승담의 경우, 구법(求法)차 도당 유학한 고승이 귀국 또는 귀국을 앞둔 시기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자장, 명랑, 보양, 보요) 이러한 특징은 고승들이 애초에 설정한 구법이라는 지향목표에 도달한 상태임을 말해주므로 불전소재 용궁삼화에서의 성불[구법의 실현]이라는 요소를 계승하면서 개별적인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④ 고승의 역할은 세부적인 차이가 보이지만 범시라는 속성을 공유한다. 이를테면 ‘비법 전수’(명랑)나 ‘경전 염송’(보양), ‘대장경 운송’(보요)’ 등 불법과 관련된 내용이 관습화된, 불교적 전통의 답습이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⑤ 용왕의 보시 내용도 다양하게 변이된다. 가사 보시(금라가사, 옥가사 등)는 고승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오랜 방법이지만-불전에도 용왕이 금라가사를 보시하는 전례가 있다- 이밖에도 황금 천년(명랑신인) 같은 재물 등 현실문맥에서 활용 가능한 사물, 정보-난국을 타개할 비책 정보[자장-황룡사9층탑], 특별한 능력자 파견(용자 이목)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용왕이 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자장과 보양의 경우 용왕의 발화 형식을 빌려 ‘사찰 건립’과 ‘용자 파견’화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주목된다. 사찰건립의 경우, 자장은 전국에 많은 사찰을 건립했지만 용왕이 건립을 요청한 사례는 황룡사9층탑(국난타개용)과 태화사(願刹)이며, 보양은 용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사찰인, 운문사로 개칭한 작갑사를 창건했다. 용자파견의 경우, 태화지용은 범천왕의 명령으로 장자를 황룡사

에 보내 호법룡으로 거주하게 했고 서해용왕은 자발적으로 용자 이목을 주어 고승을 시봉케 한다.

⑥ 고승의 향후 행보에는 사찰건립이 반드시 나타나고, 원효의 경우 그에 준하는 경전 찬술과 강설이라는 불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전법과 귀의라는 전례를 계승하면서 변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 소재 불교설화에 나타나는 용궁삼화의 양상

고승	개인 내력	수학 과정	불보살 친견	용왕 만남 장소, 계기	용왕과의 소통	용왕 조력	용왕 성격	향후 행보
자장 ²³⁾	유	유	오대산 문수보살 친견	태화지주변(태화지용) 귀국직전	용왕 7일계 공양 ²⁴⁾	호국비책(창사) *용자과견(호법룡)	호법 호국	황룡사9층탑, 태화사건립의 다양
명랑	유	간략	전법	귀국길 서해바다	서해용궁 비법전함	황금 보시	호법	금광사 창건 신인종 창시
보요	무	무	대장경 운송	대장경운송 서해바다	풍랑/주력 및 축원	풍랑 잠잠 서해용왕 모심	호법	해룡왕사 건립
진표	유	유	지장보살 미륵보살	금산사 창건 의지	8부신중 출현	용과 그 팔만권속 호위	호법	금산사 창립 의
보양	무	극히 간략	전법	귀국 서해바다	서해용궁 경전염송	금라가사(보시) 용자과견(시봉) 향후대책(창사)	호법	작갑사창건·이목행우·봉성사삼화
원효	유	유	*깨달음 관련일화들	(신라왕비) 구약 여정 서해바다	사신일행 용궁행	비책제시:소(疏)저술 및 강설 부탁 <당고승전>	호법	경전(금강삼매경 소)찬술의 다양

23) 자장법사와 태화지 용의 사례는 다양한 조에서 언급되지만, 용신과의 만남과 관련된 내용은 <황룡사9층탑>에서 자세하게 서술되며, 만남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대산오만진신>에도 언급된다. 여기서 드러나는 바를 정리하면, 용왕은 ①신라의 난국을 타개할 비책 제시(황룡사9층탑 건립), ②자신의 長子를 (황룡사 지키는) 호법룡으로 바침, ③자신의 원찰 건립 부탁이다. “태화지의 용이 현신해서 재를 청하고 7일 동안 공양하고 법사에게 말한다. 전일에 계를 전하던 늙은 중이 바로 진짜 문수보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또 절을 짓고 탑을 세울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별전에 자세히 실려있다.”(<대산오만진신>)

24) <대산오만진신> 『삼국유사』 권 제3 답상 제4.

4. 용자파견 화소의 계승과 변이

『삼국유사』 소재 고승담과의 비교를 통해, <보양이목>의 용궁삽화가 여타 사례들과 차별화될 만한 지점은 ‘용자파견’으로 파악된다. ‘용자파견’ 화소는 앞서 자장법사와 태화지 용의 대화에서 잠깐 언급된 바 있고(<황룡사9층탑>), <처용랑 망해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들 자료들과 비교하여 <보양이목>에 나타나는 용자파견 화소의 성격에 대해 파악해보기로 한다.

4.1. 황룡사 호법룡 : 태화지 용의 장자

태화지용의 장자가 황룡사 호법룡이 되었다는 내용은 <황룡사9층탑>에서 언급된다. 해당부분을 중심에 놓고 전후 내용을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장법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불법을 전수받았다.
2. 문수보살은 신라왕이 불연(佛緣)이 있어 다른 동이족과는 다르며, 산천이 험해서 재앙이 많지만 다문비구(多聞比丘)가 나라 안에 있으므로 임금과 신하 백성들이 편안하다고 했다.
3. 법사가 중국의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신인이 나타나 무슨 이유로 여기에 이르렀는가 물었다.
4. 법사가 깨달음을 구하러 왔다 하니, 신인이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가 물었다.
5. 법사가 신라가 처해있는 지리적, 정치적, 외교적 난국에 대해 설명하자 신인은 국왕이 여왕이라 이웃나라가 침략을 피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

가야 한다고 했다

6. 고국에 돌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물으니, ①용왕은 황룡사 호법룡(護法龍)이 자신의 장자라고 하면서 ②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조공하며 왕업이 길이 편안할 것이며, ③탑을 세운 후에 팔관회를 열고 죄인을 풀어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며 ④서울 인근 남쪽 언덕에 절 하나를 지어 내 복을 빌어준다면 그 언덕을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7. 말을 마친 후 옥을 받들어 바친 후에 사라졌다.(이후의 내용들은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탑의 위력과 영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용왕과의 만남은 자장법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불법을 전수받은 후 태화지 가를 지나가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제는 불전의 용공삼화가 석존의 성불 직후 용왕의 간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비견되는 것으로, 용왕의 공양은 고승의 법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음을 공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장법사와 그 신성친견 내용들은 법사의 법력을 드러내는 한편 당시 신라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함께 난국에 대처하는 신라인의 정신적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라의 국난 극복 문제는 비단 신라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문수보살과 태화지 용왕의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너희 나라 왕은 바로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의 왕으로 이미 불기(佛記)를 받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인연이 있으므로 동이(東夷)의 공공(共工) 족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산천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며 많이들 미신을 믿어서 때때로 하늘의 신이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 그렇

지만 다문비구(多聞比丘)가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이 편안하고 백성이 평화로운 것이다.” 그리고는 말을 끝내자 곧 사라졌다. 자장은 이것이 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갔다.(〈황룡사 9층탑〉)

신라는 ‘이미 불기(佛記)를 받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특별한 불연이 있는 민족이며, 산천이 험하여 때로 하늘의 신이 재앙을 내릴 지라도 다문비구가 나라 안에 있어 평안하고 평화로운 것’이라는 문수보살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범천왕이 특별히 특정 용자를 지정하여 호법룡을 보내며, 태화지 용이 특별히 출현하여 국난 타개의 비책을 제시할 만큼 불교와의 인연이 깊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신성존재들의 가호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의 왕’이라는 표현 등은 이미 세계종교화된 불교의 보편성을 대변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면화된 호법의 단계[불국토, 불보살이 가호하는 나라, 불교에 귀의한 제신이 가호하는 나라]를 바탕으로 당면한 국난 타개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호국의 기운이 강조되는 것이다. 1-5는 그러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6.태화지 용의 말아들은 이미 범왕(梵王)의 명령을 받고 황룡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라에 파견된 호법룡이다.

태화지 용의 장자 파견은 황룡사가 신라인의 정신세계 속에 어떠한 의미로 자리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파견된 용자는 황룡사 호법룡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9층탑의 건립과 그 의의를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그것이 고승의 행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독자적인 서사세계의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양이목>의 용자파견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4.2. 동해용의 아들 처용

용자과전은 <처용랑 망해사>조에서도 발견된다. 신라 49대 헌강왕 때의 일이라고 전해지는 이 서사에서 용자과전 화소는 서사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해당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대왕이 개운포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려 하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어버렸다.

2. 왕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더니, 일관이 ‘동해 용의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한다’고 하므로 용을 위하여 이 근처에 절을 지어 주도록 명하였다.

3. 명을 내리자 날씨가 맑아지고, 동해의 용이 기뻐하며 일곱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서 덕을 찬미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4. 아들 하나가 왕을 따라 서울에 들어와서 왕의 정치를 보좌해주었는데 이름을 처용이라고 하였다. 왕은 그 마음을 잡아두려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고 급간의 벼슬도 내렸다.

5. 처용의 아내는 아름다웠으므로 역신이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신하여 밤중에 몰래 그 여자와 잤다. 처용이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물러갔다. 역신이 형체를 드러내고 꿇어앉아 사과하고 이후 처용의 그림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로 사람들이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이게 되었다.

6. 왕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 곧 영취산 동쪽 경치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절을 지었으니 망해사라고 한다. 그리고 또 신방사라고도 하니, 곧 용을 위해 세운 절이다.

갑작스러운 구름과 안개는 용의 조화, 즉 의사 표현의 방식이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발신하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사람이 일관이다. 일관을 매개로 왕과 용왕은 소통한다. 용의 조화를 풀려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일관의 조언에 왕은 절을 지어주도록 명한다. 용이 원하는 좋은 일이 곧 원찰 건립이라는 사실은 자장법사가 만났던 태화지 용이 특별히 자신을 위해 절을 짓고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고승과 용왕의 만남이 대부분 서쪽이라는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현강왕이 개운포에서 만난 용은 동해용이다. 원찰 건립에 대한 약속이 언표되자 기뻐한 용은 운무를 견고 일곱 아들과 함께 현신하여 왕의 덕을 찬미하고 춤과 음악을 연주한다. 뿐만 아니라 아들 처용을 파견하여 왕의 정치를 보좌하게 한다. 용왕과 일곱 아들이 현신하여 덕을 찬미하며 춤과 음악을 연주하는 대목은 용궁행의 또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용왕이 현현하여 연회를 베푸는 모습은 용궁의 연회가 지상에 재현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왕은 돌아온 후 약속대로 터를 골라 절을 세운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강왕 행차 시 운무가 자욱하여 길을 잃어버리다.[신의(神意) 발신]
- ② 일관이 동해용의 조화이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수신, 해독]
- ③ 왕이 용을 위해 절을 지어 주도록 명한다.[원찰 건립 약속]
- ④ 동해용이 기뻐하며 일곱 아들과 현신, 왕의 덕을 찬미하고 춤과 음악을 연주하다.[용의 현신]
- ⑤ 동해용자 처용이 왕을 따라 들어와서 정치를 보좌하다.[용자파견]
- ⑥ 처용의 아내를 범한 역신이 처용에게 감복하여 스스로 물러나다.[역

신퇴치]

⑦ 왕이 용을 위해 절을 세우다.[원찰 건립]

이상 ①용의 발신과 ②일관의 수신 및 해독 ③왕의 원찰 건립 약속 ④ 용의 현신 등의 단락은 고승담에 나타나는 용왕과 고승의 만남의 양상을 연상시킨다. 그 만남이 처음 용왕의 의지에서 비롯되어 이루어진 상호소통의 실현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동해용과 헌강왕의 만남에도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앞서 보았던 고승의 법시(法施)와 용왕의 재시(財施)라는 구조는 왕과 용왕의 관계라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내용적인 변이를 보여준다. 사찰건립을 약속하는 왕과 그 덕을 찬미하고 용자를 파견하는 용왕의 행위는 법시와 재시의 변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이는 불교가 국교로 자리하게 된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불교가 국교이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도 사찰 건립의 시주(재시)로서 법이 널리 베풀어지도록[법시]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⑤ 용왕은 아들 처용을 파견하여 왕의 정치를 보좌하게 한다. 용자 파견은 황룡사 호법룡[태화지 용의 장자], 고승 시봉[서해용자 이목]에 이어 왕의 정치를 보좌하는 형태로까지 변이된다. 그리고 ⑥처용의 활약은 역신퇴치 삽화를 통해 부각된다. 여기서 처용은 춤과 노래를 통해 역신을 굴복시킨다. 이는 왕정을 보좌하는 처용의 역할과 그 방식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처용은 춤과 노래를 연행하면서 역신을 퇴치하는 의례의 주재자이다.

처용의 무속적 성격을 감안하면서 해당 서사를 다시 읽어보자. 동해용왕이 구름과 안개를 통해 전달한 의사는 원찰건립에 대한 약속으로 응답되고, 용왕 일행의 기쁨에 겨운 연행과 용자파견을 통한 왕정보좌는 불교와 토착신앙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용왕이 자신의 복을 빌

어주는 원찰을 소원하고, 원찰 건립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아들을 파견하여 왕정을 보좌하게 하는 과정들은 토착신앙이 불교적 신앙체계에 자발적으로 귀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와 토착신앙의 습합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서사의 내용이 ‘동해’용왕의 발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승담에 나타나는 용삽화의 공간적 배경이 ‘서해’, ‘중국’ 등 서쪽에 치우쳐 있었던 것과 비교되는데, 이러한 소통이 국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국교로 자리잡은 불교의 정치·사회·문화적 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와 토착신앙의 이러한 관계양상은 팔관회를 비롯한 국가차원의 행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서사에는 신라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민속적 신성관념 체계가 차례로 현현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운포에 갔을 때 나타난 동해용과 용자들의 춤과 노래를 위시하여, 현강왕이 남산에 갔을 때 나타난 남산의 신·금강령에 거동했을 때 나타난 북악의 신·동례전 연회 때 나타난 지신 등은 각기 네 개의 방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신성들이 나라가 망해갈 것을 알고 차례로 나타나 춤을 추어 경고했다는 기록은 원찰을 약속받은 동해왕이 기쁨에 겨워 춤추고 노래했다는 부분과 일정한 대비를 보여준다 하겠다.

4.3. 서해용왕의 아들 이목

<보양이목>에서 서해용왕이 용자 이목을 파견하여 고승을 시봉하게 하는 사건은 용궁삽화를 구성하는 화소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용자 이목은 <보양이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삽화의 하나인, 운문사 경내에

서 일어난 행우 사건의 중심인물로 부각된다. 이목의 행우는 <보양이목>의 중심부에 놓이는 사건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용자파견은 <보양이목>의 서사전개에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승맥락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소이므로 용자파견 화소의 성격과 의미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목의 사연은 용궁삼화에서 간략하게 제시되고, 운문사 경내에서 벌어진 이목 행우 삼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 보양이 귀국하는데 서해용왕이 용궁으로 맞아들였다.[용궁초대]
2. 용이 경을 외우게 하고, 금라가사를 준다.[법시/재시]
3. 용자 이목을 주어 고승을 시봉하게 했다.[용자파견]
4. 작갑에 절을 세우고 지내기를 당부하다.[사찰 건립 당부]
5. 보양이 작갑사를 세우다.[사찰 건립]
6. 이목은 운문사 결의 못에 거주하며 정법의 교화를 돕다.[호법]
7. 날이 몹시 가물었으므로 보양이 이목에게 비를 내리게 했다.[행우]
8. 이목이 천제가 죽으려 한다며 도움을 청하므로 상밀에 숨기다.[도피]
9. 보양이 뜰 앞의 배나무를 가리치니 사자가 벼락을 치고 올라갔다.[징벌]
10. 시들고 꺾여진 배나무는 용이 어루만져주자 소생했다.[소생]

용궁삼화에서 드러난 바, 용자 이목의 파견은 고승을 시봉하기 위한 것이다. 고승을 시봉하는 것이 곧 법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이목은 호법룡이다. 사찰에 상주하는 호법룡이라는 점에서 태화지 용의 장자와 상통하지만, 이목은 고승 보양의 시봉차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태화지 용자와는 구별된다. 또한 이목은 비를 내리는 용신으로서의 직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벼락을 맞아 시든 배나무를 한번 어루만져서 소생시키는 생명의 담지자

이다. 이러한 이목의 행적은 춤과 노래로 역신을 퇴치했던 동해용자 처용을 연상시키는 국면이 있다. 처용의 춤과 노래가 역신퇴치를 위한 무속의례로서 질병을 구축하고 건강을 회복케 한다는 점과, 용신으로서의 직능을 발휘하여 비를 내리고 시든 나무를 되살림으로써 생명을 소생시켰던 이목의 행적은 민속신앙적 배경이라는 공통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태화지 용의 장자가 범천왕의 명을 받아 파견되었다는 것과 달리 이목과 처용은 그 부친인 용왕이 자발적으로 파견했다는 점도 공통성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보양이목>조 용궁삼화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여타 고승담의 경우 용왕의 응대가 단일주제로 집약되는데 비해 <보양이목>조는 ①금라가사 보시 ②용자파견(이목 시봉) ③향후 대책 제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③은 ‘삼국의 정세가 혼란스럽고 아직은 불법에 귀의하는 군주가 없지만, 용자 이목과 함께 돌아가서 작갑에 절을 짓고 살면 능히 적병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몇 해 안되어서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의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라는 향후 행보에 대한 당부이다.

앞서 확인했듯 보양(<보양이목>)과 자장(황룡사구층탑 외)의 용궁삼화에는 용왕의 당부가 제시될 뿐 아니라 ‘용자파견’과 ‘사찰 건립’ 화소를 공유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는 태화지 용의 장자는 범천왕의 지시로 이미 황룡사 호법룡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비해 이목은 고승의 시봉으로 귀국 길에 동행한다는 점이다.

태화지용 장자 : 황룡사 수호차 파견(호법룡) — 황룡사 : 호국사찰(국가적 차원)

서해용자 이목 : 고승의 시봉차 파견(호법룡) — 운문사 : 호국사찰·선종 대표사찰

황룡사와 운문사의 호법룡의 유래가 되는 용자과견 화소를 비교해본 결과, 서해용자 이목의 파견에는 예사롭지 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태화지용과 서해용왕의 대비는 황룡사와 비견되는 운문사의 사격(寺格)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황룡사에 파견된 호법룡이 태화지 용왕의 장자리는 설정에는 호법의 당위성, 호국을 상징하는 황룡사의 위상, 신라와 당나라의 외교관계 등이 함축되어 그 의미가 서사문맥에서 다층적으로 실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용왕의 보시물이 금라가사라는 점, 나아가 당부 내용에서 드러나는 호법적 요소들-작갑창사, 호법하는 군주의 출현, 삼한 통일 등-을 감안하면 ‘용자과견’ 화소는 다양한 층위의 의미 기능을 함축하게 된다. 이목을 대동한 고승의 주처는 호법룡이 상주하는 특별한 사찰이며, 그것이 호법군주의 출현과 삼한 통일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실현하는 불사에 다름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문사는 호국사찰이면서 운문선사라는 사액이 의미하는 바 선종을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용자과견은 운문사 주변지역에서 구전되는 지명전설이나 기우제 관련 전승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전승현장을 둘러싼 현실문맥적인 문제의식을 야기하고 있다. 용왕이 아들 이목을 보내 고승을 시봉케 했다는 대목은 이후 이목행우 삼화를 통해 현실문맥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보하면서 이목의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용왕의 아들 이목과 함께 귀국한 고승은 (후에 운문사로 사명이 변경된) 작갑사를 창건한다. 이목의 존재는 운문사 경내에서 일어난 행우 사건을 통해 뚜렷하게 부각되는데, 이 내용이 현지에서 지명유래담이나 기우제와 같은 민속의례와 연관되면서 구전설화로 전해진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보양이목>의 용궁삼화에는 고도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용궁삼화는 다양한 화소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화소들은 서사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작갑에서 절을 짓고 지내라는 용왕의 당부는 작갑사창사 연기담에서 실현되고, 이목을 시봉으로 파견한 대목은 행우삼화에서 실현된다. 호법군주의 출현과 삼국 평정 대목은 태조와의 인연을 다룬 봉성사 삼화에서 실현된다. 이처럼 용궁삼화는 서사전반에 대한 예시(豫示)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화소들은 각각의 삼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여타 사래들과 차별화를 보여준다. 다양한 서사전통을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승전(僧傳)을 구성하고, 그 안에 구전설화의 전승문맥과 불교적 세계관을 포용하는 방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용궁삼화를 통해 제시되는 것은 불교서사전통이라는 전승문맥에 기반한 공인(公認)의 의미와 함께, 용신에 대한 민속적 신앙관념에 기댄 공론화 의도를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하면 <보양이목>은 여타 고승담에 비해 용궁삼화가 서사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전승맥락에 따라 인물 형상이나 관념체계의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삼국유사에서 이목의 형상은 호법룡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는 불교적 관점이 우세한데 비해, 구전설화에 나타나는 이목의 형상에는 불교적 세계관념에 대비되는 토착적 용신관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4.4. 용자파견 화소와 <보양이목>

구전설화와 문헌설화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목과 배나무에 대한 관심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고승이 이목의 행방을 묻는 천사에게 배나무를 지목하는 순간 이목의 존재성은 은폐되기 시작한다. 이목은 천사(天使)의 벼락을 맞고 시든 배나무를 어루만

저 소생시키지만 이목은 이제 서술자의 시선 밖에 놓여있다. 이목이 사라진 자리에 배나무의 후일담이 제시된다. 이목과 배나무는 동일시되고, 급기야 배나무가 이목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목 = 배나무 = 가람 내부의 공간적 위상(선법당의 빗장문치)]으로 그 서술의 단계를 높여간다.

반면 구전설화에서 천사의 추적 때문에 이목과 동일시되었던 배나무는 이목의 정체성 자각으로 인해 다시 분리되고, 서술자의 시선은 이목에게 향해지면서 그 행방을 추적한다. 이러한 관심은 이목의 행우능력에 대한 민간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목이 옮겨간 밀양 호박소에는 기우제 관련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화의 전승과 변이가 전승자의 세계인식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삼국유사의 편자가 불승이고, 해당설화가 사찰주변에서 전승되는 연기담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기저를 이루는 세계관적 기반이 불교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면 삼국유사와 구전설화 사이의 변이양상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용궁삼화에서부터 행우삼화에 이르기까지 용자파견 대목을 연관적으로 정리해보자.

용궁에서 만남 — 이목이 고승을 따라와 시봉 — 이목의 행우 — 이목의 행방?

→ 구전설화 : 호박소로 가다 — (민간에서) 기우제 통해 살아있는 상태

→ 『삼국유사』 : 배나무와 동일시 — 선법당 빗장 문치 — 불교적 세계관 속에 자리잡음

그렇다면 <보양이목>의 용자파견은 어디서 왔을까? <보양이목>이 두

가지 전승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삼국유사』에서 이목은 불승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철저하게 불교적 세계관념에 포섭된 존재이지만, 민간전승되는 이본들의 경우 이목의 성격은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⁵⁾ 서해용자 이목은 행우 사건 이후 보양의 도움으로 천제의 징벌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본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목이 고승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민간의 기우의례 등과 연관된 용신관념이라는 체계 속에 들어간다는 결말은 예사롭지 않은 문제의식을 함축한다. 그것이 전통적인 영역으로의 복귀라면 이목은 징벌 사건 이후 흔들렸던 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반발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해도 비를 관장하는 용신으로서의 속성을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용이 정치적 보좌를 했다는 것과 달리, 이목은 못에 거주하면서 그의 용신적 속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고승을 도왔다는 사실을 참고한다면 이목을 이해하는 방향도 다각적 검토가 요청된다. 법을 전해받고 돌아오는 길에 서해를 지나다가 용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용궁삼화는 불교적 상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교서사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용궁삼화는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해동으로 동진하면서 점차 정착되어간 과정을 말해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태화지 용자파견 모티프에 이어, 이목의 사례보다 앞선 동해용자 처용의 사례가 경상도 지역에서 선행했던 것을 참조한다면 서해용왕의 아들로 설정된 이목의 정체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더구나 운문사 주변 지역에서 구

25) 구전되는 <보양이목>의 각편별 검토는 강정식(1989), 천혜숙(1996), 황경숙(2000), 박다원(2015), 신태수(2014) 등에 의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전설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비전승되는 해당유형의 이본들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이 유형은 전승현장의 문맥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보양이목>의 용궁삽화는 불교서사전통을 수용한 고승담의 전례를 계승하는 한편, 해당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던 용신신앙의 관념체계와 일정하게 연관되면서 독자적으로 변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⁶⁾

이런 추론은 <보양이목>조의 서술방식과 서술내용에서도 뒷받침된다. 고승전에 해당되는 의해조의 여타 고승담과는 달리 보양의 행적은 모호하다. 구체적인 문헌정보의 부재로 인해, 그의 행적은 구전설화의 전통을 담은 삽화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선행했던 고승전에서도 그의 행적이 다른 고승의 일화로 설명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연은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진지하게 개진하고 있다. 다시 용궁삽화를 살펴해보자면, 용궁삽화의 내용도 이후의 삽화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을 신고 있어 예시적 기능을 부각하고는 있지만 개별삽화와의 중복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용왕의 입을 빌어 제시되는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혀진다. 특히 용자파견 대목이 그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양이목>조의 용궁삽화는 불교의 서사전통을 수용하면서 구전되는 관련 사례들과 연관되는 내용을 용궁삽화 속에 담아내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불교적 서사전통에서 유(喻)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비유를 통해 본래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양이목>조의 용궁삽화는 전례가 되는 서사전통을 수용하여 보양의 행적으로

26) 선행연구들은 이와 관련한 추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보양과 이목의 관계를 내주자(內住者)와 외래자(外來者)로 파악한 천혜숙(1996)의 논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전해지는 구전자료들과 부합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용자파견 화소의 경우도 서해용이 아닌 토착용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마무리

『삼국유사』 <보양이목>은 고승 보양의 행적을 몇 개의 삼화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두의 용궁삼화는 불교적 서사전통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변용을 보여주는데, 특히 용자 이목을 주어 고승을 시봉하게 하는 용자파견 화소는 여타 각편들과 차별화되는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양의 용궁삼화는 자장법사와 태화지 용의 만남을 다룬 사례와 화소상의 유사성을 많이 보여주지만, 용궁삼화가 이후 전개되는 서사내용과 다각적으로 연관되면서 예시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나아가 파견된 용자의 성격이나 속성으로 볼 때, <보양이목>의 용자파견은 동해용자 처용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요소들과 보다 친연성을 보여준다.

용자파견 화소는 황룡사 호법룡으로 파견된 태화지 용의 장자 모티프에서 잠깐 언급되지만, 본격적인 내용은 처용설화에서 구체화된다. 전자가 국가적 차원의 호법룡인데 반해, 후자는 의례를 통해 역신을 퇴치하는 민속신앙적 면모가 부각된다. 이것은 이목이 비를 내리는 용신으로서 민속신앙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사실과 상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는 서사적 층위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용자파견 화소가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운문사 주변지역에서 구전되는 <보양이목설화>에 관한 문체 해명에도 일정한 참조가 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설화가 이목과 배나무를 동일시하면서

배나무의 행방을 문제 삼는데 비해, 구전설화는 보양을 떠나 이주하는 이목의 행방을 추적한다. 이목은 구전설화에서 기우제의 대상으로 자리하면서 민속신앙의 영역으로 귀환하는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배나무와 동일시 되고 다시 법당의 빗장문치로 전환하면서 불교적 세계관 속에 완전히 편입하게 된다.

구전설화와 삼국유사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는 각기 다른 세계관적 지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고승의 서해용궁 방문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동진(東進)하는 불교의 세계종교화 과정을 보여준다. <보양이목>의 용궁삼화는 불교적 서사전통을 계승하면서 용자과견 화소를 통해 운문사 주변지역의 문화문맥(文化文脈)을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전설화가 보양과 이목의 갈등, 즉 이목의 이주라는 사건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반발을 노정하고 있다면, 『삼국유사』는 이목과 배나무의 동일시 단계를 거쳐 배나무를 불교적 세계관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재래신앙과 불교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시도하고 있다. 일연은 이러한 세계관적 지향을 서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관습화된 불교적 서사전통뿐만 아니라 민속적 서사전통을 다각적으로 계승하면서 전승현장의 문화문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변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용궁삼화는 불교의 서사전통을 계승하면서 고승의 위상을 부각하고 용자과견을 문맥화하려는 의미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장법사의 전례에서 호법룡적 면모를 보여주며 잠간 언급되었던 용자과견 삼화는, 처용설화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서사화된 독자적 유형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비불교적, 민속신앙관념을 드러내는 처용의 행적은 용신으로서의 직능을 발휘했던 이목의 성격과 유사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국면은 동해용자 처용의 파견 삼화가 서해용자 이목의 파견이라는 화소를 구체화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한다. 이런

정황들을 정리하면, <보양이목>의 용궁삽화와 용자파견 화소의 서사적 실현 과정은 불전에서부터 전례화된 불교서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운문사 주변지역의 현실문맥을 반영하는 민속적 신앙관념과 서사적 전통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불교적 세계관으로 재편성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불교설화적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선행작업의 일환으로서, 서사의 핵심을 이루는 용궁삽화와 용자파견화소의 서사적 실현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양이목>조의 삽화별 의미실현양상과 불교적 세계인식에 대한 고찰은 별고에서 재론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일연, 『삼국유사』, 최남선편. 민중서관, 1958.
-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 박종린번역 <용수보살전(龍樹菩薩傳)>, <http://blog.naver.com/byunsdd/60211915923>.
- 정상박, 『한국구비문학대계』 8-7, 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강정식, 『<보양이목> 설화 연구』, 『백록어문』 6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9, 81~103쪽.
- 김문태, 『한국설화의 구조분석 시고: 『삼국유사』 소재 <보양이목>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Vol.18 No.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0, 180~187쪽.
- 김영태, 『『삼국유사』 소전 불교 용에 대하여』, 『삼국유사의 연구』, 중앙출판, 1982, 349~385쪽.
- 김영태,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93, 451~481쪽.
- 김윤근,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출판부, 1983, 1~314쪽.
- 박다원, 『『삼국유사』 <보양이목> 설화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 16집, 태민국학연구원, 2015, 1~26쪽.
- 신태수, 『『삼국유사』 <보양이목>설화의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223~252쪽.
- 이재범,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검토』, 『신라문화계학술발표논문집』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2, 103~123쪽.
- 정천구, 『삼국유사, 바다를 만나다』, 산지니, 2013, 1~291쪽.
-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79, 1~304쪽.
-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집문당, 1985, 1~343쪽.
-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1~296쪽.
- 천혜숙, 『<보양이목>조의 전승론적 검토』,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형설출판사, 1990, 19~24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697쪽.
- 황경숙,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2000, 1~336쪽.

ABSTRACT

Study on the narrative realization process of the Sea Dragon's Palace episode and the motif of sending Sea Dragon's son in the tale of "Boyang and Yimok" contained in the Samgukyusa : focusing on the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of narrative tradition

Kang, Jin-ok

"Boyang and Yimok" of Samgukyusa shows four episodes of Buddhist Priest Boyang's deeds, that are 'Sea Dragon's Palace, 'Beginning of Jakgapsa', 'Yimok brings rain', have been brought to attention in that they show a unique variation while succeeding various narrative traditions.

The episode of Sea Dragon's Palace succeeds the old tradition of Buddhist storytelling that is rooted in the episode of Buddha's visit to 'Sea Dragon's Palace and it presents the motif of sending Sea Dragon's son to serve a buddhist priest. It also shows a unique variation that cannot be found in previous narratives by placing the episode at the beginning of the story and telling the whole story by the Sea Dragon.

Though the motif of sending Dragon's son is briefly mentioned in the motif of sending the eldest son of Taewhaji's Dragon as Guard Dragon of Hwangryongsa, the main theme is realized in the Cheoyong Tale. The former functions as a national guard dragon, while the latter plays a role of popular god who defend them from evils through rituals. It is similar to the role of Yimok as a practical god who rains for the people. Both of them also show considerable similarities in narrative levels.

The reason why we should give attention to the motif of sending sea dragon's son is that it sheds some light not only to the tale of "Boyang

and Yimok” that is transmitted orally around Unmoonsa but also to Samgukyusa. The tale of Samgukyusa treats the Yimok and pear tree as the same, while the oral tale tells the story of move of Yimok who leaves Boyang. Yimok became people’s god in the oral tale and the object of rain ritual, while in Samgukyusa, he became identical with a pear tree and transformed to a door bar of a Buddhist temple hall, thus completely incorporated in the Buddhist world.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al tale and Samgukyusa stems from the different world views. The visit of a buddhist monk to sea dragon’s palace shows the process of eastward expansion of Buddhist religion from china. The episode of sea dragon’s palace in “Boyang and Yimok” reflects cultural context of Unmoonsa area and succeeds the Buddhist narrative tradition through the motif of sending of sea dragon’s son. While the oral tale delineates the discontent against the Buddhist world view through the episode of move of Yimok, Samgukyusa attempts to incorporate and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ndigenous and buddhist beliefs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of Yimok and pear tree. Ilyeon seems to attempt to reflect the cultural context of the area in order to realize this world view in his narrative by succeeding both Buddhist tradition and various forms of popular narrative tradition

Key Words Samgukyusa, Boyang and Yimok, Sea Dragon’s Palace episode, motif of sending Sea Dragon’s son, Buddhist tale, narrative realization process, narrative tradition,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논문투고일 : 2016.6.27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18